

“믿음의 장막터를 넓혀가는 교회 (사 54:2)”

예 배 순 서

1부 08:30 AM
2부 11:00 AM

2021년 10월 3일 인도: 김정국 목사

참회의 기도 다 같 이
Prayer

* 예배의 부름 인 도 자
Call to Worship

* 성 시 교 독 교독문 39. 시편 95편 다 같 이
Responsive Reading (통 21)

*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다 같 이
Confession

찬 양 다 같 이
Praise

기 도 김대목 장로
Prayer

성 경 봉 독 누가복음 20:9-19 인 도 자
Scripture

찬 양 다 같 이
Choir

말 씬 돌 위에 떨어지는 자 김정국 목사
Sermon

찬 송 527장 어서 돌아오오 다 같 이
Hymn (통 317장)

헌 금 다 같 이
Offering

헌 금 기 도 사 회 자
Prayer

알 림 사 회 자
Announcement

* 찬 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다 같 이
Hymn (통 88장)

* 축 도 김정국 목사
Benediction

* 표는 다같이 일어서서

오늘의 말씀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 들어 흠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0:18)

말씀아침 새벽본문	4 (월)	5 (화)	6 (수)	7 (목)	8 (금)	9 (토)
	눅 23-24	요 1-2	요 3-4	요 5-6	요 7-8	요 9-10

알리는 말씀

본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방문카드를 작성하셔서 안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예배 후 성도간의 교제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금주의 모임

8:30 am 1부 예배
11:00 am 2부 예배
12:20 pm 부서별 오프라인 워크샵

주중일정

(월) 7:30 pm 시카고 아버지 합창단 연습
(화)~(금) 5:45 am 새벽기도
(수) 10:00 am 시카고 어머니 합창단 연습
8:00 pm 가스펠 프로젝트 인도자(온라인)
(목) 9:15 am 사역반 훈련(온라인)
8:00 pm 위원회 워크샵(온라인)
(금) 8:00 pm 가스펠 프로젝트 구역III(온라인)

다음주 행사

8:30 am 1부 예배
11:00 am 2부 예배
12:30 pm 부서별 오프라인 워크샵

기타사항

- 오는 10월23(토) 오전10시부터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Fall Festival이 열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부 전도사님들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주일 2부 예배 후 장학위원회 모임 및 부서별 워크샵이 있습니다. 참석바랍니다.
- 헌당예배가 교회창립 45주년과 추수감사 주일인 11월 28일(주일)에 드립니다.
- 학습/세례자 신청을 10월 17일 주일까지 목회실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새신자실을 꾸미기 위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광고시간의 PPT를 참조 바랍니다.

교우동정

* 다음주 예배위원
-안내: 이재희 장로
-헌금: 정윤권 장로
-2부 대표기도: 전승평 장로

지난 주 주일헌금

김대목 한윤정 한상모 조현식 김지연 김경호 정진원 이상철 김정국 한윤정 이영길 이재희 나영매 이옥자 김정국 이용삼 김정국 김길봉 김대목 박부명 이영길 이재희 전승평 정윤권 최준택 김순자 김진호 김태중 나영매 박인서 박지환 방인덕 이상철 이상길 이영일 이준세 이찬희 이홍자 임동규 임정자 장규성 정승원 정진원 채민병 한상모 이경희 박순희 무명2

개인적 평안과 풍요라는 빈약한 가치

사람들은 현대인들의 기본 사상이 된 관점을 점차 거의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이의 없이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미술, 음악, 드라마, 신학 그리고 대중 매체를 통하여 대다수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자 가치들은 죽어 버렸다. 좀 더 기독교적인 영향이 지배적이던 합의를 약해지자 대다수 사람들은 두 가지의 빈약한 가치, 즉 개인적 평안과 풍요를 받아들였다. 개인적 평안이란 세계 어디를 돌아다니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 때문에 곤란을 받지 않고 다만 혼자 내버려 두어지는 것, 즉 개인적으로 최대한 방해받지 않고 삶을 꾸려 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개인적 평안은 내 개인의 생활 양식이 내 아이들과 손자들의 인생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방해받지 않고 영위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풍요는 압도적이고 계속 증가하는 번영, 즉 물질과 물질, 더 많은 물질로 이루어진 생애, 즉 계속 높아지는 물질적 풍요의 수준에 의해 판단되는 성공을 뜻한다.

인본주의는 의미와 가치의 영역에서 보편자를 발견할 길이 없었다. 인본주의에는 파괴적 욕망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쳐서 허물어뜨리려는 강렬한 욕구이다. 우리 시대에는 사회학적으로 사람이 자신에게 무질서하지 않은 자유의 가능성을 주었던 그 기반을 파괴해 버렸다.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시고 성경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지식을 파멸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가치의 죽음이 그런 지식의 죽음과 더불어 찾아올지라도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여 나타난 두 가지 결과를 보고 있다. 첫 번째 결과는 퇴보이다. 뉴욕시 브로드웨이와 42번가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타임스 스퀘어를 생각해 보라. 코펜하겐에 있는 옛날 아름다웠던 거리도 마찬가지다. 폼페이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고대 로마의 표지들, 즉 퇴보, 타락, 부패, 폭력을 위한 폭력 추구 등이 우리의 얼굴에 상처를 남기고 있다. 상황은 분명하다. 우리가 관찰하면 그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 우리는 근심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불길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현대인의 의미와 가치 상실이 남긴 두 번째 결과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 두 번째 결과는 엘리트가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사회는 혼란을 견딜 수 없다. 어떤 집단이나 어떤 사람이 그 공백을 채울 것이다. 한 엘리트가 자의적인 절대 기준을 제공할 것인데, 그러면 누가 그 길을 막을 것인가? 침묵하는 다수가 도움을 줄 것인가? 소위 침묵하는 다수는 소수와 다수로 나뉘어졌고 지금도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 소수는 가치에 대한 참된 기반이 있는 기독교인이거나 적어도 가치가 참으로 존재했던 시대에 대한 기억이라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다수에게 남아 있는 것은 개인적 평안과 풍요라는 두 가지 빈곤한 가치뿐이다. 젊은 세대와 늙은 세대의 생활 양식은 다르다. 그 순간의 외부적인 차이가 무엇이든지, 예컨대 긴 머리와 짧은 머리, 약물 복용과 약물 복용 반대 사이에는 긴장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학적으로 서로를 돕고 있는데, 이는 두 세대가 모두 개인적 평안과 풍요라는 가치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상당히 많은 교회가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상대주의적 인본주의를 가르쳐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는 여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침묵하는 다수 가운데 다수가 젊거나 늙었거나 상관없이 자신들의 생활 양식이 위협받지 않는 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자유의 손실을 계속 당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그리고 대체로 개인적 평안과 풍요가 다수가 갖는 유일한 가치이므로, 정치가들은 당선되려면 이런 것들을 약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정치는 더 이상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 평안과 풍요라는 사탕발림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문제가 되고 말았다.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제국 쇠망사>에서 로마 말기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소와 사치(풍요)에 대한 고조되는 애호, 둘째, 아주 부유한 자와 아주 가난한 자 사이에서 벌어져가는 간격(한 나라 뿐 아니라 나라 간에도), 셋째, 성에 대한 집착, 넷째, 예술에서 독창성으로 가장된 기형성, 창조성인 체하는 열정주의, 다섯째, 국가를 떠나려는 욕구의 증대가 그것이다. 이 특징들은 모두 아주 친숙하게 들린다. 우리는 다시 로마로 가고 있는 것이다.

-프란시스 슈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중에서-

가정예배 10월 첫째 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시간

함께 기도 | 예배를 시작하며 함께 기도문을 읽습니다

저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불드사(찬송 433장, 구 490장)

함께 읽기 | 아래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출애굽기 25:1-22

함께 묵상 |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하나님은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 헌물을 드리는 백성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나요?(2절)

2. 하나님은 성소와 안에 들어갈 기구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속죄
소와 증거궤를 만들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10-22절)

함께 나눔 |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출처: 성서유니온선교회>

CANAAN CHURCH

가나안교회는 선교·교육·봉사를 목표로 1976년 11월 28일 나일스 지역에 세워져, 말씀과 신앙, 믿음과 삶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교회로서, 성경을 바탕으로 복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장로교 전통의 독립교회입니다.

예배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선교회모임	매월 둘째 주
구역모임	매월 셋째 주

교회학교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유년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AWANA	주일 오후 1:00
금요모임	저녁 8:00

청년회

주일예배	오전 11:00
화요기도모임	저녁 8:00

부속

라인댄스반	목요 오전 10:00
가나안한국학교	토요 오전 9:30

섬기는 사람들

원로목사	이 용 삼	847-724-2456
담임목사	김 정 국	224-577-5229
전도사(유치)	이 수 정	224-587-3815
전도사(유년)	서 줄 리	224-612-1315
전도사(Youth)	김 태 중	224-727-9830
지 휘 자		1부
		2부
파송선교사	양선한 허목자(중동)	

찾아오는 길



1255 N.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
TEL: 224-735-2346 www.canaan.org

CANAAN CHURCH

